

『正易』과 한국사상 - 사상적 연원 탐구 -

최영성(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글요약

‘한국의 주역’이라고 불리는 『정역』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상당히 진척되었다. 주로 역학(易學)의 측면에서 연구된 것이 대다수이고, 민족종교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다소 있다. 『정역』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주운행의 원리를 수리(數理)로 접근하여 미래세계를 예시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합리성과 관련된다. 그러나 합리성의 이면에 신비성이 자리잡고 있다. 지은이 김항의 ‘영적(靈的) 체험’도 간간히 엿보인다. 『정역』은 한국사상 속에 들어 있는 합리성의 측면, 정감성의 측면, 영험성(靈驗性)-신비성의 측면을 하나로 잘 융합하였다. 특히 유가철학의 합리성 측면이 한국의 전통사상과 만나 잘 어울어져 있다. 그럼에도 『정역』의 사상적, 학문적 연원을 ‘한국의 전통사상’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아직 없다. 필자는 『정역』과 김항의 사상을 연구함에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김항(金恒), 『정역(正易)』, 한국의 전통사상, 동인의식(東人意識), 이상세계, 제삼의 역(易)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I. 머리말

한국역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일부(一夫) 김항(金恒: 1826~1898)의 『정역(正易)』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날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후천세계(后天世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정역』은 문자에 담긴 심오한 의미에다 언외(言外)의 지취(旨趣)가 결집된 미언(微言)의 결정체다. ‘압축파일’이니 ‘비밀코드’니 하는 비유가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 은미한 이치를 밝혀낼 단서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은미할수록 더 드러나는 것이 역설의 법칙이다.

『정역』 연구자는 적지 않다. 그 갈래도 여럿이다. 그 가운데 학산(鶴山) 이정호(李正浩: 1913~2004)와 삼화(三和) 한장경(韓長庚: 1896~1967)¹⁾은 광복 이후 『정역』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였던 선구자다. 연령은 한장경이 위이지만 『정역』에 입문한 것은 이정호가 앞선다. 두 사람은 학문은 물론 인간 관계도 상호 긴밀하였다. 대학의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던 이정호는 계룡산 향적산방(香積山房)을 학역(學易)의 터전으로 삼았다.²⁾ 『정역』에 대한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하였으며 학술적 연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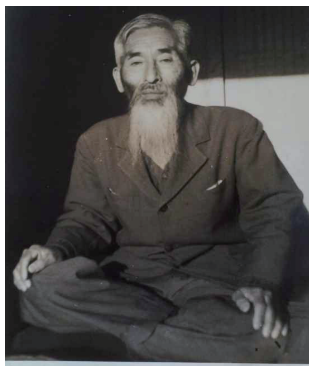
1) 함경남도 함흥 출신의 역학자다. 『明善錄』의 저자 芸菴 韓錫地(1709~1791)와 같은 집안의 사람이라 한다. 『우주변화의 원리』(1966)를 저술한 斗巖 韓東錫(1911~1968)은 그의 제자이며 同宗이다. 四象醫學으로 유명한 東武 李濟馬(1837~1900)가 함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석지·이제마·한장경 세 사람의 사상적 영향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겠다. 한장경은 광복 3년 전쯤부터 『주역』을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1955년에 첫 저서 『역학원론-생존법칙과 정치이론』(학우사)을 펴냈다. 이정호의 아들 이동준에 의하면, 한장경은 1953년부터 이듬해까지 이정호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정호가 그의 저술 활동을 돕고 『정역』을 공부하도록 권유하였다고 한다(2017. 3. 12 증언). 이밖에 한장경의 저술로 『주역·정역』(2001, 삶과 꿈)이 있다. ‘역학원리총론’·‘易經大意’·‘정역’을 합본한 것이다. 프린트본 또는 원고 상태로 있다가 외손자인 고 尹相基의 노력으로 출판되었다.

2) 향적산방은 이정호가 지은 것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향적산방에 머물면서 공동연구를 하였다.

본을 보였다.³⁾ 오늘날 『정역』이 한국철학의 한 갈래로 편입되기까지는 이정호의 공이 지대하였다. 근자에 들어서는 이정호와 그의 제자인 류남상(柳南相: 1927~2015)⁴⁾의 헌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젊은 학자들이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⁵⁾ 이들은 대개 ‘제3세대 학자’라 할 수 있다.



학산 이정호



삼화 한장정

『정역』은 ‘미래역(未來易)’, ‘완성역(完成易)’, ‘제3의 역’ 등으로 불린다. 주된 내용은 우주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간 세상의 변화를 ‘추연(推衍)’⁶⁾하는 것이다. 『정역』은 ‘지도(地道)’의 변화에 중점이 있다. 윤력

3) 2017년 1월에 『학산 이정호 전집』(아세아문화사, 13권)이 나왔다.

4) 그의 主著는 『周・正易經合編』(編著; 研經院, 2011)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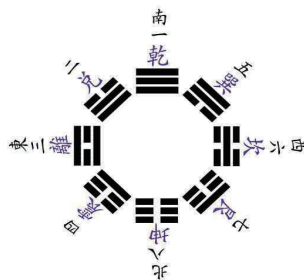
5) 金相日, 『주역 너머 정역』(상생출판, 2017); 권호용, 『正易, 手指象數』(상생출판, 2016); 김재홍, 『정역이해』(상생출판, 2016); 양재학, 『김일부의 생애와 사상』(상생출판, 2014); 양재학(역), 『正易註義』(金貞鉉 著, 상생출판, 2014); 윤종빈, 『정역과 주역』(상생출판, 2009) 등 여러 연구 성과가 있다. 권호용은 三正 權寧遠(1928~)의 아들이며 이정호의 再傳弟子다. 『정역, 수지상수』는 이정호를 통해 이어진 수지상수의 이론을 다시 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6) 『정역』에 ‘推衍’(10a) 또는 ‘推衍數’(4b, 10b)라는 말이 보인다.

* ‘10장 前面’을 ‘10a’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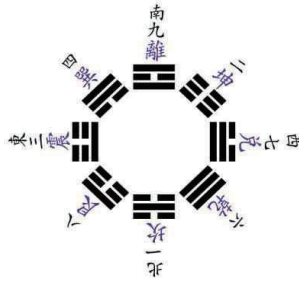
(閏曆)이 무운력(無閏曆)이 되어야 천지 사이의 잘못된 질서가 바로잡힌다는 ‘정력정륜(正曆正倫)’이 그 기본 정신이다. ‘창조의 원리’보다 ‘변화의 원리’에 중점을 두고 미래상(未來像), 미래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후천개벽(后天開闢)’ 사상의 선구적 구실을 하였다. ‘가을’과 ‘결실’의 논리가 그 골자다.

근대의 민족종교로는 동학(東學)을 비롯하여 증산교·대종교·원불교 등이 있다.⁷⁾ 『정역』은 이들 민족종교에게 강력한 이론적 바탕이 되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근대 민족종교치고 『정역』과 사상적으로 연관 없는 것은 거의 없다. 대개 19세기 중반 이래 민족종교가 잇달아 모습을 드러내면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그 중심에 우주의 변화에 따른 ‘후천변화론’이 있었다. 정역팔괘도를 보면 복희·문왕의 팔괘도와 괘의 배치가 다르다. 억음존양(抑陰尊陽)으로 상징되는 선천의 괘도로부터 조양율음(調陽律陰)을 상징하는 후천의 괘도로 바뀌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근대 민족종교에서 말하는 ‘개벽사상’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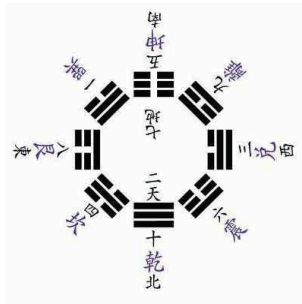


복희팔괘도

7) 지난날 교세가 대단하였던 普天敎도 이 대열에 넣을 수 있다.



문왕팔괘도



정역팔괘도

근대 민족종교의 두드러진 특징은 ‘민족 고유사상’을 모태로 한다는 점이다.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의 사상적 근간인 ‘풍류(風流)’의 정신으로 귀결된다. ‘민족종교’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역』 역시 민족 고유사상과 연결됨은 물론이다.

『정역』의 성격과 계통은 단순하지 않다. 이는 후학들의 접근 방법이나 연구 경향으로도 알 수 있다. 대개 양면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정역』에 담긴 종교성을 살리려는 한 갈래가 있고, 신비주의적 술수(術數)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학리적(學理的)으로 연구하는 다른 한 갈래가 있다. 전자는 일부 신흥종교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고, 후자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었다.⁸⁾ 또한 『정역』의 성격을 놓고 ‘유불선합일지정(儒佛仙合一之精)’, 즉 유·불·선 삼교의 정수가 합일된 것으로 보는가 하면, ‘선진유학(先秦儒學)’의 전통을 이어 유교 본래의 오의(奧義)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⁹⁾

필자는 근대 민족종교에서 『정역』의 내용을 중시하고 그 저자 김향을 높이는 데에는 이유와 내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후천개벽을 주창하는 민족종교에서는 김향이 제시한 ‘선후천 변화의 원리’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향과 『정역』이 민족 고유사상의 맥을 계승한 것으로 보아 높이 평가하였다.

본고에서는 『정역』의 사상적 연원으로서의 한국사상에 대해 논구하려 한다. 『정역』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필자 역량 밖의 일이다. 논제에 충실할 것이다. 선행 연구의 인도가 없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끝으로 본고를 작성함에, 은사 이동준(李東俊) 선생의 강화(講話)에 힘입은 바 컸음을 밝혀둔다.

II. 김향의 학문 성향과 『정역』의 성격

김향은 본관이 광산(光山)으로, 조선 세조 때 좌의정을 지낸 김국광(金國光: 1415~1480)의 14세손이다.¹⁰⁾ 가정 배경으로 볼 때 그는 유가사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36세에 이인(異人)으로 유명한 강산(薑山) 이서구(李書九: 1754~1825)의 제자 연담(蓮潭) 이운

8) 대표적인 경우로 研經學會를 들 수 있다.

9) 이 견해를 대표하는 학자가 觀中 柳南相 교수다. 류남상의 훈도를 받은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연구서가 류남상·임병학 공저, 『一夫傳記와 正易哲學』(研經院, 2013)이다.

10) 沙溪 金長生, 愼獨齋 金集으로 이어지는 계열과는 갈래가 다르다.

규(李雲圭: 1804~1861?)를 만나 인생 일대의 획기적 전기를 맞았다. 그 이전까지는 여느 학자들과 비슷한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짐작된다.¹¹⁾ 그는 일생토록 『주역』과 『서전(書傳)』을 공부하였다고 한다.¹²⁾ 이것은 『정역』을 저술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주역』을 통해 미래 변화의 원리적 이론을, ‘기삼백(基三百)’의 원리를 제시한 『서전』을 통해 우주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터득하였으리라고 본다.

김항의 연학(研學) 과정, 학문 배경 등을 살필 수 있는 제1차 자료는 매우 적다. 유일한 저술인 『정역』에도 서문이나 발문이 없다. 다만 김항의 친필로 된 ‘대역서(大易序)’와 ‘일부사적(一夫事蹟)’ 등이 따로 전하여 연구에 도움이 된다.¹³⁾ ‘대역서’와 ‘일부사적’은 초본(草本)¹⁴⁾ 및 초본의 내용을 정서하면서 약간의 내용을 수정한 정서본(淨書本)이 전한다. 초본은 저자의 원의(原意)를 살피는 데 중요하고 정서본은 생각이 어떻게 정돈되었으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검토하는 데 유용하다.

김항은 『정역』의 첫머리 ‘십오일언(十五一言)’에서 유가의 도통(道統)을 밝혔다. 『정역』이 공자와 유가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대역서」에서는 공자의 거룩함을 기리고, 공자와 맹자를 ‘만고의 성인’이라고 칭송하였다. 또 복희씨의 선천역(先天易)을 ‘초초지역(初初之易)’이라 하고, 자신의 『정역』을 ‘내래지역(來來之易)’이라 하여, 『주역』 없이 『정역』이 나올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김항 자신이 유가적 색채를 분명히 드러낸 만큼, 김항의 학문과 사상의 본령을 유가에서

11) 『정역』에서 ‘理氣’와 같은 성리학의 개념까지 수용한 것이 흥미롭다. 『정역』, 1b, 「十五一言」 “地載天而方正，體；天包地而圓環，影。大哉，體影之道，理氣固焉，神明萃焉。”

12) 『정역』, 17b, 「九九吟」 “讀書學易，先天事。”

13) 이정호, 『정역연구』(2017), 원문 131-134쪽 참조.

14) 초본은 그야말로 神筆이다. 개인의 글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말씀을 代筆한 듯한 감이 있다. 『훈민정음』 「制字解」에서 “아마도 하늘이 성심(聖心: 세종의 마음)을 열어서 대왕에게 손을 빌려주심 것인저!”(殆天啓聖心，而假手焉者乎)라고 한 말이 연상된다. 이정호, 『정역연구』(2017) 부록, 132-133쪽 참조.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일부사적」 초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六十年率性之工, 秉義理大著春秋事者, 上教也.

이에 대해 이정호는 “육십년 술성한 공에, 의리를 잡아 크게 춘추에 나타날 일은 위에서 가르치심이다”¹⁵⁾라고 번역하였다. 임병학은 위 대목을 인용하여 “선생은 평생 오로지 성인의 도학에 정진하여 오직 공자의 춘추대의(春秋大義)의 진의를 천명하여 드러내는 데에 종사하였다”¹⁶⁾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춘추사(春秋事)’를 춘추대의로 이해한 것은 엉뚱하다는 느낌이다. 정서본을 보면 위 대목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있다.

六十年守眞之力, 秉義理大著, 脩春秋事者, 自誠也.

육십년 동안 ‘진(眞)’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의리를 붙잡아 크게 드러내고 춘추의 일을 닦은 것은 자성(自誠)의 결과다(필자역).

김항의 일생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술성하는 공부’보다 ‘진(眞)을 지키려는 노력’¹⁷⁾이 그의 학문 본령에 더 가까운 것으로 느껴진다. ‘의리’란 『정역』에서 말하고자 하는 ‘역자력야(易者歷也)’의 핵심을 말한 것으로 보이며, ‘춘추의 일을 닦는 것’¹⁸⁾이란 춘추이분(春秋二分)의 도수(度數)를 통해 정력(正曆)의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작업으로 짐작된다. 또 ‘상

15) 이정호, 『원문대조 국역주해 정역』(2017), 113쪽.

16) 류남상·임병학, 『一夫傳記와 정역철학』, 17쪽.

17) ‘率性之工’을 ‘喫苦之狀’으로 고쳤다가 ‘喫苦’(고생)란 표현이 속되다고 생각하여 다시 ‘守眞之力’으로 고친 것 같다. 「일부사적」 참조.

18) 보완된 ‘脩’ 자는 종래의 것을 고치거나 다듬어 정리한다는 의미다.

교(上敎)’를 ‘자성(自誠)’¹⁹⁾으로 고침으로써 앞 구절에서 말한 ‘신고(神告)’와의 대우(對偶)가 잘 이루어졌다.

‘진’을 지킴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진리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이른바 ‘무극의 진(無極之眞)’에 서의 ‘진’과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필자는 이 ‘수진지력’ 녀 자가 김향의 학문 성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향의 학문과 사상을 보면 유가에 그치지 않고 불가와 선가(仙家)까지 아우른다. 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만나는 무언가 하나의 실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무위시(無位詩)’를 보자.

道乃分三理自然 도가 셋으로 나뉘은 이치상 자연스러운 것
 斯儒斯佛又斯仙 이에서 유교가 나오고 불교가 나오며 또 선도가
 나오는 것을.
 誰識一夫眞蹈此 뉘라서 알라, 일부가 진정으로 이 도를 도습(蹈襲)한 줄을.
 無人則守有人傳 사람이 없으면 지킬 것이요 있거든 전해주리라.²⁰⁾

김향이 말한 ‘도’는 과연 어떤 도인가? ‘이를 도습했다’[蹈此]²¹⁾고 할 때의 ‘이것’이란 ‘이 도’[此道]를 가리키는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전해줄’ 것인가. 이런 물음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보면, 김향이 말한 ‘도’란 도의 근원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불·선 삼교의 핵심을 포함(包含)하면서도 삼교를 넘어선 ‘무위(無位)’의 위치에 있음이

19) ‘上敎’를 ‘本分’으로 고쳤다가 다시 ‘自誠’으로 고쳤다. 「일부사적」 참조.

20) 『정역』, 20a, 「無位詩」

21) 36세부터 54세까지 18년간의 김향의 행적이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다. 고운 최치원이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말한 ‘현묘지도(玄妙之道)로서의 풍류(風流)’를 연상하게 한다. ‘무위’란 어느 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김항의 학문과 사상을 애써 유가의 틀 안에 매어두려는 것은 김항의 본지와 배치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더 볼 것이 있다.

붉은 것들(火)과 흰 것들(金)이 상호 작용을 하는 가운데
그 속에 ‘선(仙)’을 배우는 무리가 있어
통소 불며 밝은 달을 감상하며 즐기네.
赤白白白互互中, 中有學仙侶, 吹簫弄明月.²²⁾

이것은 구금(九金)과 이화(二火)가 서로 엇바뀐 ‘금화호역(金火互易)’의 원리를 은유한 것이다. ‘금화호역’은 ‘금화정역(金火正易)’이라고도 한다.²³⁾ ‘정역’이란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 ‘중유학선려(中有學仙侶), 취소농명월(吹簫弄明月)’ 운운한 것은 중국 당나라 때 사람 구단(丘丹)이 위응물(韋應物: 737~791)에게 보낸 시에서 따온 것이다.²⁴⁾ ‘선인(仙人)’을 ‘선려(仙侶)’로,²⁵⁾ ‘산월(山月)’을 ‘명월(明月)’로 바꾸었을 뿐이다.

구단의 시에 나오는 ‘선(仙)’은 일반적 의미의 신선이지만, 김항이 ‘금화삼송’에서 말한 ‘선’은 최치원이 증언한 선사(仙史)의 ‘선’이라든지, 화랑국선(花郎國仙)의 ‘선’과 같은 것이다. ‘학선’에 대해 한장경은 유·불·선이 하나로 합쳐진 융합체로 보았으며, 김항이 진정으로 이를 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²⁶⁾ ‘학선’을 ‘진도차(眞蹈此)’와 결부시킨 것이 주목

22) 『정역』, 5b, 「金火三頌」

23) 『정역』, 6b, 「金火五頌」 “嗚呼! 金火互易, 不易正易.”

24) 丘丹, 「答韋蘇州」 “露滴梧葉鳴, 秋風桂花發. 中有學仙人, 吹簫弄山月.”

25) ‘學仙侶’는 朱子の ‘感遇’ 시 “飄飄學仙侶, 遺世在雲山”에 보인다.

26) 한장경, 『주역·정역』, 715쪽 “學仙侶者, 儒佛仙, 而一夫眞蹈此. 一夫先生諱雷風恒, 則學仙侶者, 雷風也.”

된다. 우리 선학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선(僊)’을 높여서 ‘고신도(古神道)’라 일컬었다. 김향의 ‘무위시’와 ‘금화삼송’은 그의 학문 계통, 『정역』의 성격, 나아가 근세 민족종교의 사상적·정신적 맥락을 시사한 것이라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김향은 유·불·선(도) 삼교에서의 중요 개념을 빌어 자신을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대성칠원군(大聖七元君)’은 도교에서 북두칠성의 정령을 가리키는 ‘대성북두칠원군(大聖北斗七元君)’이다. 또 금화정역의 세계를 불교에서 말하는 ‘용화세월(龍華歲月)’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용화미륵불이 출현하여 교화하는 후천의 세계를 말한다. 이를 다른 말로 ‘유리세계(琉璃世界)’라 하였다. 또 『정역』을 ‘정리현현진경(正理玄玄眞經)’이라 명명하기도 하였는데, ‘현현진경’이란 명칭에서 도교의 색채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정리’ 두 글자를 덧붙여 유가적 성격을 가미한 것이다. 이를 보면 『정역』은 공자사상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유불선합일지정(儒佛仙合一之精)’을 넘어서 무위(無位)의 경지를 추구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어느 것이 김향의 학문 본령인가? 유교, 특히 역학이 본령인데 여기에도 불교와 선가 등의 사상을 수용하여 외연을 넓힌 것인가? 아니면 유·불·선을 넘어서는 재래의 사상체(思想體)가 그 본령인데,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역학에 관련된 저술만 남긴 것인가, 그도 아니면 뭔가 숨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 실상과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것인가? 의문에 의문이 이어진다.

『정역』이 미언은사(微言隱辭)로 점철된 것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학설이 ‘파천황(破天荒)’이라 할 정도로 파격적인 것이어서 세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동학을 창도한 최제우(崔濟愚: 1824~1864)가 좌도난정(左道亂正)의 죄목으로 죽임을 당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정역』이 완성된 것은 1885년이니 최제우가 죽은 21년 뒤이다.

천도교 및 증산교, 김항의 후학들에게 전하는 바에 의하면, 최제우와 김항은 이운규의 문하에게 배웠다고 한다. 최제우와 김항의 교유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현재로선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라는 동학의 주문이 이운규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세전(世傳)의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운규가 이들 세계열의 문인·후학들에게 끼친 영향이 매우 컸고, 또 그들 사이의 사상적 연관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비록 이들이 각각 ‘선(仙)’과 ‘유(儒)’와 ‘불(佛)’을 말아 그 방면으로 발전시켜 나갔지만, 사상적·종교적 모체(母體)는 하나였을 것이다. 그 ‘모체’의 실상을 이운규가 문인·후학들에게 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이운규의 학문 계통이 단지 정통 유가요, 역학이라고 하는 주장²⁷⁾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동학과 정역과 남학은 미래세계를 예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후천사상과 개벽사상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로 통한다. 다만 그들이 그린 미래세계 속에는 현세에 대한 비판의 논리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²⁸⁾ 전제 왕조의 탄압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였다. 동학이 탄압을 받았고 남학 역시 그것을 피하지 못했다. 김항은 이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항에게 역학은 알파이자 오메가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보호막이나 보호색 구실을 해낸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정역』의 메시지는 건곤정위(乾坤正位), 뇌풍정위(雷風正位)를 체로, 간태합덕(艮兌合德), 산택통기(山澤通氣)를 용으로 한다.²⁹⁾ 『정역』은 『

27) 류남상·임병학, 『一夫傳記와 정역철학』, 77쪽.

28) 『정역』에서는 불완전, 불합리, 불평등한 현실세계와 미래의 이상세계를 未濟와 既濟, 나아가 閏曆과 正曆 등으로 선명하게 대비하였다.

29) 이정호, 『정역연구』(2017), 83-118쪽 참조.

주역』 「설괘전」 제6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³⁰⁾ 종래에는 「설괘전」 제4장을 복희팔괘와, 제5장³¹⁾은 문왕팔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왔다. 이에 비해 「설괘전」 제6장의 경우, 주자(朱子)조차도 ‘그 의미를 자세히 알 수 없다’(未詳其義)고 하였다. 그러다가 김항에 의해 이것이 정역팔괘로 괘도화(卦圖化)한 것이다.

『정역』과 관계 있는 『주역』 「설괘전」 제6장의 키워드는 ‘신야자 묘만 물이위언야(神也者妙萬物而爲言也)’, ‘산택통기’, ‘뇌풍불상괘(雷風不相悖)’, ‘수화상체(水火相逮)’ 등이다. ‘산택통기’는 팔간(八艮)과 ‘삼태(三兌)’가 합덕³²⁾한 것을 의미하고, ‘수화상체’³³⁾는 수와 화가 서로 힘을 미치는 것을 말함이니 ‘사감(四坎)’과 ‘구리(九離)’가 서로 만나 수화상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뇌풍불상괘’는 ‘뇌풍상박(雷風相薄)’과 같은 말로, ‘육진(六震)’과 ‘일손(一巽)’이 제자리를 잡고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

김항은 「설괘전」을 근저(根柢)로 미래의 변화상을 제시하되, 우주운행의 도수(度數)로써 이를 증명하였다. 『정역』에는 수많은 혁명적 사고가 들어 있지만, 동학이나 남학과는 달리 조정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다.³⁴⁾ 그 주된 이유는 『정역』이 기본적으로 역학에 관계된 책이었기 때문이다. 『주역』이 없었다면 『정역』은 나올 수 없다고 본다. 대다수 사람들이 『정역』을 ‘역학’의 연장선상에서 보았을 것이다. 특히 상수역의 여류(餘流)

30) 『주역』, 「설괘전」 6 “神也者, 妙萬物而爲言也. 動萬物者, 莫疾乎雷, 撓萬物者, 莫疾乎風, 燥萬物者, 莫熯乎火, 說萬物者, 莫說乎澤, 潤萬物者, 莫潤乎水, 終萬物始萬物者, 莫盛乎艮. 故水火相逮, 雷風不相悖, 山澤通氣, 然後能變化成萬物也.”

31) 『주역』, 「설괘전」 5 “帝出乎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 說言乎兌, 戰乎乾, 勞乎坎, 成言乎艮.”

32) 하늘이 땅의 도수에 합하는 것 말함. 땅이 하늘의 도수에 합하는 것은 ‘합道’라고 한다.

33) ‘수화불상척(水火不相射)’과 같은 말이다.

34) 『정역』의 성격이 비교적 온건했기 때문에, 또는 『정역』에 혁명적 사고는 있지만 세상을 뒤바꾸려는 운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탄압을 피할 수 있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즉, 나침반은 있었지만 배를 몰아가는 선장이 없었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듯하다.

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를 볼 때, 김항의 학문과 사상 경향이 기본적으로 유가와 깊숙한 관련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가 쪽으로만 좁혀서 이해³⁵⁾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역』은 재래의 관점으로 정통 유가에서 이탈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정역』에 이런 사정을 암시한 대목이 있다.

이 세상의 도도(滔滔)한 선비님네, 나의 방랑음(放浪吟) 한 곡조 들으시라! …… 육십 평생을 미쳐 지낸 한 사람, 제 웃고 남 웃으니 항상 웃음이 많구나. 웃음 속에 웃음 있으니 웃음이 어떤 웃음이고, ……³⁶⁾

‘도도’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모양’을 말한다. 또 쉽 없이 말을 하는 모양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로 해석하면 끊임없이 김항을 비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짧은 글 속에 ‘소(笑)’ 자가 열 번이나 등장한다. 남들의 비웃음과 애써 자위하는 김항의 서글픈 웃음이 함께 들어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김항의 학문 방법과 성격이 독특하여 주위의 오해가 있었고 비웃음을 샀으며 비난까지 받았다고 한다. 광산김씨 종중에서는 김항의 학문을 이단시하여 족보에서 그를 삭제할 정도였다.³⁷⁾ 그럼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일로매진하였다. 다음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뜻을 참되게 갖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끝이나 처음이나 게으름이 없으면 정녕코 우리 화화옹께서 만드시 친히 가르침을 베풀 것이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35) 류남상·임병학, 『一夫傳記와 정역철학』, 68쪽 참조.

36) 『정역』, 17b-18a, 「九九吟」 “凡百滔滔儒雅士, 聽我一曲放浪吟. …… 六十平生狂一夫, 自笑人笑恒多笑. 笑中有笑笑何笑, 能笑其笑笑而歌.”

37) 이정호, 『정역연구』(2017), 245쪽.

誠意正心，終始无怠，丁寧我化化翁，必親施教。是非是好吾好。

앞의 대목은 김항의 학문 성격, 수양 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이고, 뒤의 내용은 남을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변함없는 신념을 토로한 것으로 짐작된다. 끝 대목은 공자의 이른바 ‘종오소호(從吾所好)’³⁸⁾를 연상케 한다.

김항의 학문과 사상의 폭은 결코 좁지 않았다. ‘시호오호(是好吾好)’는 그의 학문관을 대변한다고 본다. 특히 ‘무위시’는 김항의 학문이 한국사상의 본령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한국 상고대부터 여러 유파(流派)의 사상을 뛰어넘어 연면히 전해 내려온 도맥(道脈)과 접속됨을 강력히 표출한 것이라 하겠다. 본고에서 이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Ⅲ. 19세기 판 東方思想과 東人意識

『정역』은 간방(艮方)에서 출현한 역이다. ‘간역(艮易)’이란 별칭이 여기서 유래한다. 간역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주역』 「설괘전」에 있다. 그러나 간방을 우리나라와 연관하여 해석한 경우는 19세기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성리학자들은 ‘성언호간(成言乎艮)’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제출호진(帝出乎震)’이란 말을 소중화(小中華) 사상과 연결하여 동방문화(東方文化)의 정채(精彩)가 ‘동방(東邦: 조선)’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³⁹⁾ 또 동방에서 상제(上帝)로 받아들지는 성왕(聖王)이 나올

38) 『논어』, 「述而」 “子曰：富而可求也，雖執鞭之士，吾亦爲之，如不可求，從吾所好。”

39) 李恒老, 『華西集』 권17, 34b, 「鳳岡疾書」 “帝出乎震，震東方也。……天地之東，爲三方之長，而托始托終，可知也。周末，禮樂在東魯。皇明末，名節道學在東邦，亦一理也。”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부터 간방이 주목을 받고 중시되기에 이르렀다.

동북방인 간방을 우리나라로 보고 새로운 말씀을 이룬 사람이 김항이다. 간방에서 『정역』이 출현한 것은 「설패전」에서 ‘성언호간’이라 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 종래에는 ‘언(言)’자를 대부분 어조자(語助字)로 보았으나, 『정역』 연구자들은 대개 ‘말씀’이란 의미로 해석한다. 증산교 등 일부 민족종교에서는 사실상 ‘구원의 메시지’(福音)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항의 선후천 변화의 이론은 근대 민족종교의 개벽사상과 기본적으로 통한다. 후천의 이상세계가 우리나라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본 점 역시 같다. 필자는 이것을 19세기 판 ‘동방사상(東方思想)’이요 ‘동인의식(東人意識)’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이는 9세기 말 신라의 최치원이 이론을 정립하여 고취⁴⁰⁾한 이래 거의 1천 년 동안 맥락이 단절되다시피 한 것이다.

‘간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마치 1천 년 전에 최치원이 ‘동방’과 ‘동인’에 대해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기 이전까지 그 전례가 없었던 것과 양상이 비슷하다. 김항은 자신의 학문 연원을 ‘친지무궁화무용’에 연결하면서도 가문 내력, 즉 세계(世系)를 ‘신라삼십칠왕손(新羅三十七王孫)’이라 하였다. 신라 미추왕으로부터 효공왕까지의 37대에 걸친 임금들의 후손임을 특별히 기록한 것이다. 민족주체의식의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문왕팔괘도」에서 ‘간’은 방위로 동북방이다. 팔괘를 지리상으로 나누어 보면 우리나라에 해당한다고 한다. 계절로는 겨울과 봄의 중간이다. 겨울의 ‘종(終)’과 봄의 ‘시(始)’를 동시에 지닌 방위다. ‘종만물(終萬物), 시만물(始萬物)’이라 함은 이런 의미다. 또 나무로 치면 ‘결실’을 의미하

40) 최치원의 동인의식과 동방사상에 대해서는 최영성, 『고운 최치원의 철학사상』(문사철, 2012) 참조.

는데, 뿌리가 ‘시’라면 열매는 ‘중’이다. 이 역시 ‘시’와 ‘중’을 아우른다. 다만 열매는 성장할 때는 뿌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결실을 본 뒤에는 뿌리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것은 진(震)이 변하여 간(艮)이 되는 이치와 같다.⁴¹⁾ 지리상으로 중국을 의미하는 진방(震方)에서 동방문화가 출발하여 간방에서 완성을 본다는 말이 ‘제출호진(帝出乎震)’이요 ‘성언호간(成言乎艮)’이다.⁴²⁾ 간은 종착점인 썸이다. 여기서 『정역』에 담긴 주체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김항은 자신의 『정역』을 ‘간방’과 연결시켰다. 자신이 말한 ‘제삼의 역’이 간역(艮易)임을 누누이 시사하였다. 「정역팔괘도」를 보면 「문왕팔괘도」에서 ‘동방 진(震)’이 있던 자리에 ‘간(艮)’이 들어서 있다. 지난날 「문왕팔괘도」가 동아시아(중국 중심)를 판도로 했다면, 「정역팔괘도」에서는 간방이 동방을 대표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필자는 간역에 담긴 정신세계를 ‘19세기판 동방사상이요 동인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금화정역이 주역(周易)과 같지 않다고 선언한 것부터가 주체의식의 발로라 하겠다. 난세(亂世)나 난국(難局)을 당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복돋우는 동인의식이 고취되었음은 눈여겨 볼만 하다.

IV. 한국사상의 종교성 회복, 풍류사상의 계승

김항의 스승 연담 이운규가 화두 삼아 김항에게 내려주었다는 시는 다음과 같다.

觀淡莫如水 담박함을 보는 데는 ‘물’만한 것이 없고
好德宜行仁 덕을 좋아하려면 ‘인’을 행해야 된다네.

41) 「정역팔괘도」 참조.

42) 「문왕팔괘도」 참조.

影動天心月 천심달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니
勸君尋此眞 이 대목에서 진리를 찾아 보시게나.⁴³⁾

한 구절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시다. 기구(起句)와 승구(承句)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허다한 도덕적 명구(名句)의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전구(轉句) 이하의 내용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전구는 선천의 16일이 후천의 초하루가 되는 이치를 담은 것이라 한다.⁴⁴⁾ 그렇다면 기구와 승구도 그와 연관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기구를 “흐르는 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도를 깨닫는 첩경”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⁴⁵⁾ 전후가 제대로 통하겠는가. 위의 ‘막여수’는 ‘기갑야반생계해(己甲夜半生癸亥)’ 즉, 후천은 선천과 달리 ‘자(子)’에서 시작하여 순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亥)’에서 시작하여 역으로 행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요, ‘의행인’은 후천의 시작점인 계해(癸亥)를 원(元)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될 줄 안다. ‘인’은 오상의 시작이니 ‘원’과 같은 개념이다.

『정역』은 이수(理數)를 추연(推衍)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마디로 합리성과 관련된다. 그런데 합리성의 이면에 신비성이 자리잡고 있다. 김항 자신의 ‘영적(靈的) 체험’도 은근히 비취지고 있다. 『정역』에는 조화주(造化主)로서의 ‘화무상제(化无上帝)’가 두 번 나오고 ‘상제조림(上帝照臨)’이 두 번 나온다. 또 조화옹의 준말로 ‘화옹(化翁)’을 말하기도 한다.⁴⁶⁾ ‘상제’의 관념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이것은 『정역』이 ‘도수(度

43) 『정역』, 19b, 「先后天周回度数」 “余年三十六, 始從蓮潭李先生, 先生賜號曰觀碧. 賜詩一絕曰: 觀淡莫如水, 好德宜行仁. 影動天心月, 勸君尋此眞.” ‘好德’은 『서경』, 周書, 「홍범」편에 나오는 ‘攸好德’을 가리킨 듯하다.

44) 이정호, 『정역연구』(2017), 216쪽 참조.

45) 류남상·임병학, 『一夫傳記와 정역철학』, 75-77쪽 참조.

46) 비슷한 말로 ‘化化翁’, ‘天地無窮化无翁’, ‘普化一天化翁’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數)’를 기본으로 연역되는 합리성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비성의 배경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역』이 던진 중요한 메시지다. 동양에서 학(學)과 도(道)를 따로 보지 않듯이 철학과 종교를 분리시켜 보지 말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우주원리에 합치되는 신앙을 하라는 무언의 당부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향을 ‘새 나라 새 종교의 창도자(創道者)’로 평가하는 것⁴⁷⁾은 일리 있다고 하겠다.

김향이 상제를 말하면서 이를 조화옹이란 말과 동격으로 사용한 것은, 용어상 민족종교와 맥락을 같이 한다. 대종교(大宗教)의 경전 『삼일신고(三一神誥)』에서 말하는 조화주(造化主), 교화주(教化主), 치화주(治化主)의 개념을 통틀어 ‘상제’나 ‘화옹’이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화화(化化)’는 조화·교화·치화의 공능(功能)을 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화옹께서 친히 화사(化事)를 주의하여 지켜본다”(化翁親視監化事: 『정역』, 9b)고 할 때의 ‘화사’ 역시 조화·교화·치화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소개했던 인용문을 다시 새겨보기로 한다.

뜻을 참되게 갖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끝이나 처음이나 게으름이 없으면 정녕코 우리 화화옹께서 만드시 친히 가르침을 베풀 것이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誠意正心, 終始无怠, 丁寧我化化翁, 必親施教. 是非是好吾好.

여기서 ‘성의정심’이란 말에 주목하다 보면 유가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성을 다하면 화옹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내 속에서 하늘을 찾거나 신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상

47) 이정호, 『훈민정음과 일부 정역』(2017), 291-317쪽 참조.

속에 담긴 영험성(靈驗性)의 측면을 고취한 것이면서 아울러 유교의 종교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초월적 신’보다 ‘내재적 신’을 중시하는 것은 한국사상의 특성 가운데 하나다. 내 속에서 천성(天性)을 찾고 불성(佛性)을 찾고 신성(神性)을 찾는 것이 한국사상의 본령이다. 『삼일신고』에서는 “자기의 본성 속에서 그 분의 아들 됨을 구하라! 신성(神聖)께서는 너의 뇌 속에 내려와 계신다”(自性求子, 降在爾腦)라고 하였다. 모든 인간의 머릿속 깊은 곳에 하느님이 내려와 계신다⁴⁸⁾는 이 ‘일신강충(一神降衷)’⁴⁹⁾ 사상과 맥락이 같다고 하겠다. 마지막 대목은 김항이 궁리수신(窮理修身)을 함에 종교적 측면에 각별히 유념했음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김항의 『정역』은 유교의 종교적 측면, 아니 한국사상의 종교적 측면을 회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제의 개념은 신도(神道)의 개념을 배태(胚胎)한다. 김항은 뇌풍항괘(雷風恒卦)를 중시하여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항’괘에 담긴 의미는 ‘한결같다’[久也]는 것이다. 이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의미와 통한다. 김항은 뇌풍항괘에 담긴 의미를 중시한 끝에 이름을 ‘항’으로 바꾸기까지 하였다. 그는 ‘금화일송’에서 “화공이 붓을 놓음에 뇌풍의 도가 생겨났다”(畫工却筆, 雷風生)라고 할 정도였다.

『주역』에서 ‘뇌풍(雷風)’은 만물을 운행하는 ‘기(氣)’를 의미한다. 만물의 본질을 이루는 ‘정(精)’은 대개 수화(水火)로 표현된다. 김항이 뇌풍을 중시했던 이유는 일차적으로 뇌풍으로 상징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우주의 운행이 이루어진다는 점,⁵⁰⁾ 그리고 뇌풍이 하늘을 대신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수식천공대인성

48) 동학이나 대종교에서는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지 않고 ‘모신다’고 한다. ‘侍天主’란 내 영성 속에 있는 하느님을 모신다는 말이다.

49) 李崑, 『太白眞訓』, 중편.

50) 이점은 최제우의 ‘至氣’ 철학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誰識天工待人成)’이란 기실 뇌풍의 의미를 염두에 둔 말이라 하겠다.

뇌풍에는 발시(發施)·유행(流行)·고동(鼓動)의 의미가 들어 있다. 우레와 바람은 지상(地上)에 행해지는 것이다. 땅 위에 우레가 펼쳐지는 것을 예괘(豫卦: 雷地豫) 대상(大象)에서 ‘뇌출지분(雷出地奮)’이라 하였다. 우레가 출현하여 땅을 흔든다는[奮震] 말이다. 대개 예괘에는 상제(上帝)의 상(象)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는 상제의 권위를 상징한다. 상제를 중시했던 김항의 사고가 ‘예괘’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한편 바람이 지상에서 행해지는 모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관괘(觀卦: 風地觀)가 있다. 바람이 땅위를 스치는 것이 관괘의 상이니 성인이 이를 본받아 신도설교(神道設敎)한다는 것이다. 예괘에서 ‘상제’의 이미지를 끌어내고, 관괘에서 ‘신도(神道)’의 의미를 도출해 낸 것이야말로, 김항이 뇌풍향괘를 중시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짐작한다. 여기서 고운 최치원이 풍류도를 해석하면서 ‘설교지원(設敎之源)’ 운운한 것과 근원적으로 상통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⁵¹⁾ 한편, 김항은 관괘에서 도출한 신도를 대장괘(大壯卦)에서 말하는 ‘예의(禮義)’를 통해 풀어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하였다.⁵²⁾ 그가 “좋을시고, 일부의 장관이로다”(好一夫之壯觀-「金火二頌」)고 한 대목에서 ‘장관’은 대장괘와 관괘의 줄임말이다.

『정역』은 『주역』에서 이른바 ‘궁리진성(窮理盡性)’⁵³⁾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김항의 학문 경향을 보면 궁리진성 너머에 ‘고무진신(鼓舞盡神)’⁵⁴⁾이라는 다른 한 축이 있다. 이 두 명제는 본디 역학 공

51) 『정역』에서는 ‘神道設敎’의 기반으로서의 皇極易을 말하였고, 그것의 실현 방법으로서의 皇極風을 말하였다(이정호, 『정역연구』 2017, 197-199쪽 참조). 황극역과 황극풍은 최치원이 말한 ‘神道設敎의 풍류’와 여러 면에서 상통하는 점이 있다.

52) 『정역』, 5a-5b, 「金火二頌」 “風三山而一鶴, 化三碧而一觀. 觀於此而大壯, 禮三千而義.”

53) 『주역』, 「說卦傳」 “昔者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而生蓍, 參天兩地而倚數, 觀變於陰陽而立卦, 發揮於剛柔而生爻,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以至於命.”

54) 『주역』, 「繫辭 上」 “子曰: 聖人立象以盡意, 設卦以盡情偽, 系辭焉以盡其言, 變而通之以盡利, 鼓之舞之以盡神.”

부와 관련 있는 것이다. 전자가 공리에 중점이 있다면 후자는 수양에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⁵⁾ ‘사람을 고무시켜 신명(神明)을 다하게 한다’는 고무진신은 공부 방법의 하나이면서, ‘감발흥기(感發興起)’ 같은 교육 방법과도 통한다. 감발흥기는 크게 감동을 받아 분발하거나 아주 흥미를 느껴 마음과 힘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감흥의 최고 경지는,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고 스텝을 밟는 경우다. 정명도가 말했던 ‘수무족도(手舞足蹈)’⁵⁶⁾의 경지가 이것이다.

‘고무진신’은 이후 김항에 의해 ‘영가무도(詠歌舞蹈)’로 구체화하였다.⁵⁷⁾ 이 영가무도는 주자가 「소학제사(小學題辭)」에서 소학(小學)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소학의 방법은 청소하고 응대하며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순하며 행동에 혹시라도 어그리짐이 없어야 한다. 행동(실천)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시를 외우고 글을 읽으며 노래하고 춤을 추며 혹 시라도 한도를 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小學之方，灑掃應對，入孝出恭，動罔或悖。行有餘力，誦詩讀書，詠歌舞蹈，思罔或逾。

주자가 말하는 영가무도는 아동의 정서함양과 관련된 교육 방법이다. 김항이 말하는 영가무도는 주자가 말한 것과 같지는 않다. 다만 심성수양의 한 방법이요 정감에 의지하는 것이라는 점은 같다.

『정역』을 보면 ‘금화송(金火頌)’, ‘구구음(九九吟)’, ‘십오가(十五歌)’와

55) 이 두 가지 공부방법을 아우르는 것을 ‘精義入神’(『주역』「계사 하」)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56) 『二程全書』에서 “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를 모두 4회 언급하였다.

57) 김항은 영가무도를 하였다고 한다. 그것도 매우 골독(汨篤)하게 하였다 한다. 야간에도 영가무도를 열심히 한 나머지 무도를 한 자리에 풀이 나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영가무도를 표방하거나 이것을 후학들에게 가르쳤다는 분명한 기록은 없다.

같이 각 편의 제목부터 ‘영가’를 암시한다. 이밖에도 ‘일곡(一曲)’, ‘가악(歌樂)’, ‘율려성(律呂聲)’ 등 영가와 관련된 말들이 등장한다. 영가무도는 김항의 학문 방법을 드러내는 중요한 화두요, 『정역』에 나오는 ‘우우이이(于于而而)’ 같은 것은 영가무도의 실체를 직접 드러낸 경우다.

김항이 영가무도를 중시하였음은, 후일 김항의 가르침을 따르는 집단에서 김항을 ‘영가무도교(詠歌舞蹈敎)’의 창시자로 받들었던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유·불·선 합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불교를 그 중심에 놓았던 남학에서는 영가무도를 각별히 중시하였다. 노래와 춤을 통한 이 수련법은 연담 이운규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⁵⁸⁾ 이를 볼 때, 영가무도를 ‘궁리진성하기 위한 방법’만으로 이해하는 것⁵⁹⁾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유가의 이론이나 논리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정역』이나 김항의 학문 경향을 보면 ‘독서학역(讀書學易)’의 합리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고무진신에서 유래한 영가무도의 신비적 측면이 공존한다. ‘철학과 종교의 공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김항이 창교(創敎)는 하지 않았지만, 근대 민족종교에서 자교(自敎)의 지도자와 함께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동학과 남학, 그리고 김항이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영가무도는 어찌보면 우리 고유의 선택(仙脈)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이 성행함에 따라 그 맥락이 희미해졌던 한국사상의 종교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김항의 『정역』이 우리 고유사상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암시는 있는 것 같다. 일찍이 진흥왕순수비에서는 우리나라 상고대부터 풍류라는 신앙체(사상체)가 존재했음을 증언하였

58) 이를 확증할 만한 기록은 없다. 전해 받은 정도가 얼마 만큼인지도 알기 어렵다.

59) 류남상·임병학, 『一夫傳記와 정역철학』, 34-35쪽 참조.

고, 최치원이 「난랑비서」에서 이것을 재확인하였다.⁶⁰⁾ 진흥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순풍(純風)과 현화(玄化)를 말하였고,⁶¹⁾ 최치원은 우리의 고유한 현묘지도(玄妙之道)를 말하면서 그것의 이름이 ‘풍류(風流)’요 그것의 묘용(妙用)이 ‘접화군생(接化群生)’이라고 요약하였다. 여기서 골자는 ‘풍’과 ‘화’다.

이와 관련하여 『정역』에 나오는 다음의 문구를 새겨보기로 한다.

삼산에 바람 부니 한 마리 두루미 날아오고 삼벽을 변화시키니 한 마리 황새 날아든다.

風三山而一鶴, 化三碧而一觀.⁶²⁾

여기서 ‘산’은 ‘간(艮)’이다. ‘벽’은 못[澤]이니 곧 ‘태(兌)’를 가리킨다. 삼산은 진변위간(震變爲艮)하는 과정을, 삼벽은 손변위태(巽變爲兌)하는 과정을 말한다. 결국 『정역』에서 이상시하는 간태합덕(艮兌合德)의 경지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 하겠다.

위에 등장하는 ‘학’은 두루미, ‘관’은 황새[鶴]를 가리킨다. 둘다 고매한 기상과 우아한 기품을 지닌 새다. 그러나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뚜렷하다. 두루미는 소리를 내는 새이고 황새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 또 두루미가 나무 위에 앉지 못하는 반면, 황새는 일상 생활을 거의 나무 위에서 한다고 한다.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보면 음과 양의 관계에 있는 것과 같다.

두루미와 황새가 등장한 이유는 ‘화명선무(和鳴善舞)’ 녀 자에 있다.

60) 최영성, 「최치원의 풍류사상 이해와 그 기반」, 『한국철학논집』 40, 한국철학사 연구회, 2014; 최영성, 「진흥왕순수비의 재검토-사상적 측면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43, 한국고전번역원, 2014 참조.

61) 『조선금석총람』 상권, 9쪽 “純風不扇, 則世道乖眞, 玄化不敷, 則邪爲交競. 是以, 帝王建號, 莫不修己以安百姓.”

62) 『정역』 5a, 「金火二頌」

부부가 서로 노래하고 춤추는 듯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정역』에서 취한 것이다. ‘금화일송’에서 “서봉의 울음소리, 울려성이로구나”(瑞鳳鳴兮律呂聲)라고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 하겠다. 증산교 등에서는 이를 부연하여 “서봉의 울음소리, 울려성이로구나! 울음에 화답하고 춤을 잘도 추니 일부의 장관이로다”(瑞鳳鳴兮, 律呂聲, 和鳴善舞, 一夫壯觀)라고 하였다.

대중을 감화하고 교화하는 데는 풍류만한 것이 없다. 지도자가 바람이라면 민중은 풀이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흔들거리거나 드러눕게 되어 있다.⁶³⁾ 바람에는 사물을 변화하게 하는 생동력·생명력이 있다. ‘풍’에 ‘화’ 자가 결합되어 풍화(風化)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풍화’는 감성적 차원의 감화, 이성적 차원의 교화, 영성적 차원의 영화(靈化) 등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

바람이 감성적, 정감적 측면에서 잘 어울리는 것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고대부터 시가(詩歌)나 음악·연극 등을 통해서 인심을 고무(鼓舞)하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우리 고유사상인 풍류도 역시 악(樂)·가(歌)·무(舞)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악·가·무를 중시한 궁극의 목적은 어울림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었다. 바람은 영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흔적은 남긴다. 영성이란 그런 것이다.

필자는 김향이 중시했던 ‘영가무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궁리진성의 차원에서 보면 ‘신이명지(神而明之)’, 즉 신령하여 사물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지나지 않지만,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하늘과 소통하는 신비한 경지를 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과의 소통이 한 경지에 이르고, 그 경지가 고조되면 영가(詠歌)를 하고 무도

63) 『논어』, 「顔淵」 “君子之德，風；小人之德，草。草上之風，必偃。”；『서경』, 周書, 「君陳」에서도 “爾惟風，下民惟草”라 하였다.

(舞蹈)를 한다.⁶⁴⁾ 영기(靈氣)가 주어지고 통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물이 된다. ‘기’로 표현할 수 있는 정감성과 ‘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험성이 이 지점에서 하나로 만나게 된다. 이처럼 ‘접(接)’자에는 한국사상의 특성이 함축되어 있다. 필자는 김향의 영가무도에는 재래의 ‘접화군생’의 사상적, 종교적 맥락이 숨어 있다고 판단한다.

V. 三元思想과 后天皇極論

김향은 “천지의 이치는 삼원(三元)이라”고 하였고, ‘무극’과 ‘태극’과 ‘황극’의 삼극(三極)을 말하였다. 삼극이란 우주와 인간의 변화를 이끄는 세 가지 본체이자 동력이다. 김향은 무극을 ‘十’이요, 태극을 ‘一’이라 하여 체용의 관계로 보았으며, 무극을 지덕(地德), 태극을 천도(天道)라 하였다.⁶⁵⁾ 또 무극인 ‘十’과 태극인 ‘一’을 합하면 ‘토(土)’가 되며 이것이 체와 용을 합한 중앙 오황극(五皇極)이라고 하였다.⁶⁶⁾ 황극은 무극과 태극의 중앙자리이면서 양자를 집약 통일하는 존재다. 이 삼극은 다른 말로 무극은 ‘지극’, 태극은 ‘천극’, 황극은 ‘인극(人極)’이라고 할 수 있다.

삼극은 본체론의 측면에서 일단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천·지·인 삼재(三才)⁶⁷⁾를 바꾸어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재나 삼극은 다 같이 삼원사상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무극’은 재래의 유교 경전에 나오

64) 그와 반대일 수도 있다. 즉, 영가를 하고 무도를 하는 가운데 한 경지에 이르고, 그 경지가 고조되면 하늘과의 소통(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65) “无極而太極이니 十一이니라. 十一은 地德而天道니라”

66) 『정역』, 「十五一言」 “舉便无極十, 十便是太極一. 一无十无體, 十无一无用, 合土居中五皇極.”; “皇極而无極이니 五十이니라.”

67) 『주역』, 「繫辭下傳」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지 않는 개념이다. 그래서 김항은 “위편삼절의 우리 부자께서는 무극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으나 뜻은 있으셨네”⁶⁸⁾라 하고, 또 “무극의 무극은 부자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네”⁶⁹⁾라고 말했다. 도의 근원처에 대한 언급이라 하겠다.

삼극의 개념은 『천부경』에 나오는 ‘일석삼극(一析三極)’이란 말과 친근하다. ‘삼극’이란 말 자체가 『천부경』에 처음 나올 뿐만 아니라, 『천부경』 등 민족종교와 관련된 경전들에서 삼극을 무극·태극·황극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一’을 생성수, ‘十’을 완성수로 보는 것은 『정역』의 기본 사상이다. ‘십’이 곧 하나요, ‘일’이 곧 열이라는 것이다.⁷⁰⁾ 김항은 이것을 공자의 경우를 이끌어 ‘일이관지(一而貫之)’⁷¹⁾와 ‘십이익지(十而翼之)’로 상징화하였다. 완성수인 ‘十’은 짝 찬 것을 의미하며 동그라미(○)로 표시된다.⁷²⁾ 「금화정역도」에 이런 이치가 담긴 것으로 본다. 복희팔괘도는 1부터 8까지 8개의 숫자로, 문왕팔괘도는 1부터 9까지 9개로, 정역팔괘도는 1부터 10까지 10개로 설명한다. 가장 높은 숫자인 이 ‘십’은 『정역』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십일(十一)’의 논리는 유교나 불교에도 들어 있지만, 그에 앞서 『천부경』의 근간을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천부경』을 오래 연구한 최동원(崔棟源)은 『정역』에서 말하는 우주변화의 기본 논리가 『천부경』의 내용과 상합(相合)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⁷³⁾ 『천부경』이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그만

68) 『정역』, 17b, 「九九吟」 “三絕韋編吾夫子, 不言無極有意存.”

69) 『정역』, 2b, 「十五一言」 “無極之無極, 夫子之不言.”

70) 불교 『화엄경』에서 말하는 ‘一卽多, 多卽一’의 논리에 비겨볼 수 있다.

71) 공자의 이른바 ‘一以貫之’를 김항이 재해석하여 ‘一而貫之’로 표현한 것이다.

72) 동그라미를 지구의 公轉(圓轉)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최동원, 『天符經講典』(正常生活, 2009), 128쪽 참조.

73) 최동원의 『天符經講典』全篇에 걸친 주장이다.

두더라도, 『천부경』 자체에 담긴 사상들이 상고대로부터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천부경』의 내용은 한 사람의 반짝이는 지혜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한편, 『정역』은 ‘황극역(皇極易)’으로도 일컬어진다. 그 만큼 황극을 중시한다는 의미다. 김항은 ‘삼극’을 말하면서 황극을 무극과 태극의 중심에 놓았다. 본디 ‘황극’은 『서경』의 주서(周書), 「홍범(洪範)」 편에서 나왔다. 『서경』에서의 ‘황극’은 홍범구주(洪範九疇) 가운데 하나로, 임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표준[準極]을 말하는 것이었다. 황극의 도는 ‘대중지정(大中至正)’ 녀 차로 요약된다.

그러나 김항이 말하는 황극은 임금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다. 『정역』에서의 황극은 완성된 인간상, 즉 ‘후천군자(後天君子)가 거할 중심처(中心處)’라 할 수 있다.⁷⁴⁾ 그런 의미에서 선천의 황극과는 대비되는 후천의 황극이다. 대중지정한 황극의 도를 임금만이 아닌 모든 인간들에게까지 끌어올렸다. 일부(一夫)가 만부(萬夫)요 만부가 일부인 것이다. ‘인간완성’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인간존중사상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다.

황극을 무극과 태극의 중심에 놓은 것은 미래세계가 ‘인존(人尊)’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김항이 「포도시(布圖詩)」에서 ‘수식천공대인성(誰識天工待人成)’, 즉 하늘이 하시는 일(造化)이 지인(至人)을 기다려 이루어진다고 한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지인’은 하늘을 닮은 완전한 인간을 말한다. 결국 인간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이고 일월도 지인이 없으면 헛 그림자다”(天地匪日月空殼, 日月匪至人虛影)라고 한 말 역시 천공(天工)을 대신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임은

74) 이정호, 『제삼의 역학』(2017), 146쪽; 이정호, 『훈민정음과 일부 정역』(2017), 58쪽.

물론, 인간 완성의 후천시대를 여는 지인(至人: 真人)의 등장을 알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것은 이전 시기 반곡(盤谷) 성이심(成以心: 1682~1739)의 『인역(人易)』에 담긴 ‘인간학적 역사상’이라든지 민족종교에서 말하는 ‘인존사상’과도 서로 맥락이 통한다고 하겠다.

김항은 「십일읍」에서 ‘불초자(不肖子) 김항’이라 하였다. 이것은 자신을 낳아준 어버이에 대한 말이 아니다. ‘하늘의 불초자’라는 말이다. 김항이 ‘불초’라고 한 이면에는 그 자신이 ‘하늘의 아들’[天子]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 한 마디로 하늘의 일을 대행한다는 그런 의식이다. 한편 김항은 「일부사실」에서 ‘통천지제일원(通天地第一元)은 김일부(金一夫)’라고 하였다. 여기서 ‘제일원’은 김항이 말한 삼원(三元) 가운데 첫번 째라는 말이니 김항 자신이 황극의 주인공 됨을 선언한 것이다. 인간 완성의 극치를 말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김항이 “내가 주인 되어 차례로 전개하였다”⁷⁵⁾는 말을 다시 새기게 된다.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은 한국사상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김항의 『정역』에 이르러 ‘인간의 완성’을 부르짖게 된 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한국사상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인만큼, 사상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VI. 맺음말

한국역학사에서 ‘제삼의 역’으로 불리는 『정역』의 위상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학계에 상존하는 『정역』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불식된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75) 『정역』 6a, 「金火四頌」 “四九二七金火門, 古人意思不到處, 我爲主人次弟開, 一六三八左右分列”.

『정역』은 1945년 8.15 광복을 전후하여 극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조용히 연구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야 겨우 연구서가 선을 보일 정도로 연구 활동이 드물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일부 김향의 학문 경향과 사상적 성격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가 갈린다. 순수학문, 그리고 유가철학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종교적 신비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그리고 ‘새 종교의 창도자(創道者)’로까지 평가하는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관점에 따라 그런 다양성은 얼마든지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전체를 하나로 아우를 필요는 있다. 통관(通觀)의 측면에서 보면 김향의 학문에서 역리(易理)를 중심으로 하는 유가사상과 한국의 전통사상은 상호 이질적이지 않다.⁷⁶⁾ 오히려 잘 융합된 감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교와 도교의 측면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김향의 학문과 사상을 우리의 전통사상-고유사상과 연결해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김향은 『정역』을 통해, 또 그의 일생을 통해 한국사상의 특성과 연관된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한국사상 속에 들어 있는 합리성의 측면, 정감성의 측면, 영험성-신비성의 측면을 묘합(妙合)하였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보면 유가철학에 수렴되지만, 궁리진성의 합리성과 고무진신의 영험성이 한국의 전통사상과 어느 한 지점에서 융화했음도 빼놓을 수 없다고 본다.

고려 중기의 학자 백운(白雲)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주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한 바 있다. 그는 『주역』을 ‘神明(神明)의 책’이라고 하면서, 유가의 오경 가운데 지신(至神)함이 복희역(伏羲易)과 같은 것이 없으며, 천지의 도를 밝힌 경전 가운데 가장 신비한 것이라고 하였다.⁷⁷⁾ 한편, 그는 「동명왕편(東明王篇)」 서문에서 동명왕

76) 특히 『주역』과 『서전』 등에 나오는 數理와 관련된 이론이 『천부경』과 잘 들어 맞는다는 연구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 신이(神異)한 사적(事蹟)을 ‘환(幻)’과 ‘귀(鬼)’로 보려는 시각에 대해 비판하고, 우리나라는 신비하고 이적(異蹟)이 있는 나라로서 그 창업이 신묘(神妙)하다고 하였다.

동명왕의 사적(事迹)은 환(幻)이 아니요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요 신(神)이었다. …… 변화신이(變化神異)한 것으로써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일이 아니요, 실로 창국(創國)하신 신성한 자취이니, 여기에 기술하지 않으면 후일에 장차 어찌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시를 지어 이를 기록하고 저 천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께서 계신 곳[聖人之都]임을 알도록 할 따름이다.⁷⁷⁾

이것은 합리성을 중시하는 유교사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면서 아울러 예부터 우리나라에 신비적 요소를 지닌 고유사상이 전해오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주역』을 신비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내성 내신(乃聖乃神)’으로 표현되는 한국사상의 신비적 영험성에 연결시킨 것은, 『정역』의 사상적 근원을 밝히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이 된다고 하겠다. 『정역』은 합리성과 신비적 영험성이 묘합한 것에서 그 특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사상의 특성’이야말로 김향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정역』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를 기대한다.

77) 『동국이상국전집』 後集 권12, 「秦始皇不焚周易論」 참조.

78) 『동국이상국전집』 前集 권3, 1b-2a, 「東明王篇 序」

□ 참고문헌 □

『정역』, 1923년, 遯巖書院板.

권영원, 『正易句解』, 상생출판, 2011.

류남상·임병학, 『一夫傳記와 正易哲學』, 研經院, 2013.

양재학, 『김일부의 생애와 사상』, 상생출판, 2014.

윤종빈, 『정역과 주역』, 상생출판, 2009.

이정호, 『정역연구』(학산이정호전집 제3권), 아세아문화사, 2017.

이정호, 『제삼의 역학』(학산이정호전집 제6권), 아세아문화사, 2017.

이정호, 『원문대조 국역주해 정역』(학산이정호전집 제8권), 아세아문화사, 2017.

최동원, 『天符經講典』, 正常生活, 2009.

최영성, 『되짚어 본 한국사상사』, 예문서원, 2015.

한장경, 『주역·정역』, 삶과 꿈, 2001.

한장경, 『역학원론』, 도서출판 향지, 2012.

[Abstract]

Jungyeok and Korean Thought

- A Study of Its Ideological Origin -

Choi, Young-s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Often called 'Korean Zhōu Yì,' *Jungyeok*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study since the 1990s. Much of it was in the tradition of yi study, with some approaching it as a subject of folk religion. The thesis of *Jungyeok* sees cosmos as constituting in numerical principles in order to predict the future. Primarily, this is based on rational thinking. However, there is also an element of mysticism. The author, Hang Kim, also incorporated his own spiritual experience. Thus *Jungyeok* is a good example of the amalgamation of rationality, affectivity and spirituality-mysticism which are found in the Korean ideology. In particular, it combines the rationality of Confucian philosophy with the traditional ideologies of Korea.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 attempt to find the ideological and academic origin of *Jungyeok* in the Korean traditional ideology. The author calls for a multifaceted approach in studying *Jungyeok* and Kim's ideology.

Key words : Hang Kim, *Jungyeok*, Korean traditional ideology, Korean identity awareness, ideal world, The Third Yi

■ 논문접수일: 2017년 5월 9일, 심사완료일: 6월 14일, 게재 확정일: 6월 15일